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데뷔전 쓴맛 본 김비오 "이번엔 명예회복"

PGA 봅호프 클래식 대기 1번 순위로 출전 행운… 나상욱도 시즌 첫 승 도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전에서 컷 탈락의 고배를 마신 김비오(21·넥슨)가 명예회복을 준비한다. 김비오의 두 번째 PGA 무대는 봅호프 클래식이다. 김비오는 20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 웨스트골프장 파머코스(파72·6930야드)에서 닷새 동안 이어지는 봅호프 클래식에 출전한다.

애초 대기순번 1번으로 교체선수에 포함됐던 김비오는 18일 PGA투어 홈페이지에 발표된 출전선수 명단에 이름이 포함되면서 출전권을 얻는 행운을 얻었다. 김비오의 두 번째 PGA 대회인 봅호프 클래식은 경기 방식이 독특하다. 5라운드로 진행되는 이 대회는 선수들이 4개 코스를 돌며 1~4라운드를 치르고 나서 상위 70명만 최종 5라운드에 출전해 순위를 가린다.

지난 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신인왕과 발렌타인대상, 최저타수상을 받았던 김비오는 한국 국적의 선수로는 최연소로 PGA 퀄리파잉스쿨을 통과, 지난 15일 개막한 소니오픈을 통해 '꿈의 무대'를 처음 밟았다. 하지만 PGA 무대는 '코리언 루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김비오는 1라운드부터 폭우로 물기를 잔뜩 머금은 그린에 고전하면서 결국 2라운드 합계 2오버파 142타에 그쳐 컷 통과에 실패했다. 김비오는 "첫 대회에서 컷 탈락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겠다. 오히려 성적이 매우 좋아 자만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봅호프 클래식을 통해 본격적인 실력 발휘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무엇보다 데뷔전이었던 소니오픈을 앞두고 닫고 쥐는 그립에서 여는 그립으로 바꾸며 애를 먹었던 김비오는 새로운 그립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지면 성적도 함께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비오와 함께 PGA 투어에 함께 데뷔한 강성훈(24·신한금융그룹)은 대기 순번 8번이라 출전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후배들과 소니오픈에 함께 나섰던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도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日, 요르단과 8강 동행

아시안컵 사우디·시리아 꺾어

일본이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8강에 안착했다.

일본은 18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라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1일째 조별리그 B조 3차전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에서 오카자키 신지(25·시미즈 S-펄스)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5-0으로 크게 이겼다. 2승1무가 된 일본은 나란히 2승1무의 요르단과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서 4점을 앞서 조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B조 2위인 개최국 카타르와 21일 4강 진출을 다툰다.

개막전만 해도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들의 맞대결이었지만 2패로 일찌감치 탈락이 확정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날도 영 힘을 쓰지 못했다. 1차전 시리아에 1-2로 패한 뒤 주제 페제이루 감독을 경질하고 2차전 요르단과 경기에서 0-1로 진 뒤에는 축구협회장을 갈아치운 사우디아라비아는 3차전에서도 일본에 참패를 당하며 끝없는 내리막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같은 시간 카타르 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요르단과 시리아의 경기에서는 요르단이 2-1로 역전승을 거둬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다. 21일 A조 1위 우즈베키스탄과 8강에서 맞붙는다. /연합뉴스

KIA 실전같은 연습경기 日 야쿠르트 등과 맞대결

KIA 타이거즈가 실전 같은 연습경기를 통해 2011 도약을 노린다.

괌과 일본에서 스프링캠프중인 KIA 타이거즈가 18일 연습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KIA는 조범현 감독이 예고 한대로 2월 4일 자체 청백전을 시작으로 일찌감치 시즌 채비에 나선다. 또 일본에 캠프를 차린 두산·롯데 그리고 일본 야쿠르트·소프트뱅크와의 연습경기를 갖고 옥석가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2월13일 캠프지인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하마 구장에서 두산과의 연습경기를 치른 KIA는 2월19일에는 미야자키시에 있는 사이토 구장으로 건너가 '특급 마무리' 임창용의 소속팀인 야쿠르트 스왈로스와 연습경기를 갖는다. 2월23일에는 아이비구장에서 소프트뱅크와의 맞대결을 벌인다.

24일 가고시마로 이동하는 KIA는 귀국전까지 4차례 롯데와 연습경기에 나서 베스트 전력을 가늠할 예정이다. KIA는 타 팀과 일정을 협의해 몇 차례 더 연습경기를 치를 방침이라 실전을 통한 주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17일 야수조의 캠프가 마련된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하마구장에서는 선수단 환영식이 열렸다.

휴가시 구로키 겐지 시장 등 20여명의 시관계자와 황병일 수석코치를 비롯한 선수단 전원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휴가시 관광협회와 프로야구 캠프 유치위원회 등은 돼지고기와 소시지, 주스, 이온음료 등의 격려품을 KIA에 전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본의 유카 후지모리가 17일 스페인 라몰리나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 스노보드 월드챔피언십 스노보드 크로스 경기에서 허공을 가르고 있다. /연합뉴스

〈안성남〉 〈허재원〉 〈이현승〉 〈레이나〉

광주 FC·전남 새얼굴 영입

프로축구 광주 FC와 전남 드래곤즈가 새 얼굴을 통해 전력을 강화했다.

신생구단 광주FC가 18일 공수강화를 위해 강원 FC의 공격수 안성남(27)과 수원 삼성의 전천후 수비수 허재원(27)을 영입했다.

순간적인 돌파와 한 박자 빠른 슈팅이 돋보이는 안성남은 174cm, 68kg로 2008년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후 통산 47경기에 출전해 6골4도움을 기록했다.

울산현대미포조선 소속으로 뛰었던 내셔널리그에서 '베스트 11', '전기리그 최우수선수'에 선정되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중앙수비수와 왼쪽 사이드를 소화하는 허재원은 볼을 다루는 감각과 위치선정이 뛰어나며, 187㎝의 장신을 이용한 위협적인 헤딩슛이 장점이다. 대인마크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전남 드래곤즈 정해성 감독도 공격력 강화를 위해 17일 브라질 용병 레이나(22)와 FC 서울의 이현승(23)을 광양으로 불러들였다. 두 선수 모두 계약조건은 1년 임대다.

1989년생인 레이나는 173cm, 70kg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공격형 미드필더로 16살 때 프로에 첫 발을 내디딘 신예 선수다.

2009년 U-20 남미컵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힌 레이나는 브라질 1부리그의 강호 크루제이루팀 소속이다.

2006년 전북 현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현승은 지난해 FC 서울에서 뛰면서 통산 87경기에 출전, 10골 11도움을 기록했다. 171cm, 68kg의 작은 체구지만 순간적인 움직임이 뛰어나 전남의 빠른 공격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